



종말론에 관한 역사적 고찰

김정훈

왜 하필 종말론인가?

종말론은 글자 그대로 마지막 때에 관한 논의 혹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마당에 뭔가 좀 잘해보자는 소리는하지못할망정 새해 벽두부터 하필이면 종말론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혹은 여기저기서 떠드는 말세에 관한 말들 때문에 어딘가 석연치않은 구석을 안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따지고보면 종말에 관한 관심과 종말론에 대한 관심은 약간 다른 것 같다.

‘종말’ 하면 아마겟돈, 딥임팩트, 파티마의 예언, 노스트라다무스 등등 꺼낼소재들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종말에 대하여 ‘논’ 하려 한다면, “위험하다,어렵다, 하찮다” 등등의 핑계로 얼버무리는 수가 많다. 나는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싶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미지와실제로 알아서 말할 수 있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간격이 있기때문이다.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 내는 최대의 피해는 뭔가두렵다는 생각속에 알아봐야 골치만 아프다고 기피하게 되는 현상이다.

사실 한국에 사는 기독교(개신교)인 만큼 종말론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도없을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의 여파가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서인지몰라도 종말론에 관해서라면 말하는 사람이건 듣는 사람이건 혹시 이단사설이아닌가 하는 두려움까지 갖게 된다. 그래서 종말론을 선불리 건드리지 말아야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보수적이라고 자부하는교계나 신학계에도 마찬가지로인 것같다. 종말에 관해서라면 수많은 가지치기와말은 많은데 정작 종말론은 조직신학의 맨끝에 부록정도로 붙어다니는 경우가 많다. 종말론은 반드시 종말에 부록처럼 다루어야한다는 신학적 입장이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나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라. 이점에서 나는한국에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종말에 대한 입장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고전제하고 싶다.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쓸데 없는 공론은 하지 말라.’ 한국 기독교는 아직도 이러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결과?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대로 식으로 뇌두거나 오히려 텔레비전에서떠드는 종말론이 마치 종말론의 정론인것처럼 기독교인들마저 읊어야하는슬픈 현상이 생기거나 혹은 이와 반대의 극단으로 광신적 종말론으로 끝나버리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 모든 현상의 원인으로 첫째, 종말론이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과, 둘째로 이러한 피상적이해를 바탕으로 한 육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체와 영혼의 이원론 때문에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약해지는 신앙형태, 세째로 비관주의적 세계관(다 불타없어지리라는)에 입각한 개인적 신앙에 몰두하는 기형적 영성때문이라고 본다. 이중 두번째와 세번째이유는 한국인으로 가지는 전형적 의식구조인 ‘현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에맞물려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첫째 원인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것 같다. 그러면 정말 종말론은 구원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않다. 이와 관련된 물음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논할 수 있는가? 신약성경의 거의 매 장마다 나오는 재림(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내용을 빼놓고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혹은 선포하고있는가?) 종말에 대한 소망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하는 선한 행동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한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종말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기독교가 과연 종말을 두려워하는 세상에대답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실체는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위해 생명이 인간에게 부여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세상에 보내졌는가?

이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는 없다. 다만 이 글에서는 고대나현대를 막론하고 기독교 종말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거기에 기초하여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유독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종말론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부분이 되었는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기말을 사는 한국의 기독교인으로서 왜 종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함께 생각해 보겠다.

종말론은 과연 기독교만의 것인가?

얼마전에 방송에서 밀레니엄 특집을 다룬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다.

1999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센세이션한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사회자가 진행을 시작하면서 종말론은 주로 기독교의 역사적관점때문에 세기마다 문제가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파티마의 예언사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등을 요한계시록과 연관지어 특집으로 다루었다. 요즘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심각한 주제라도 그냥 웃고넘길 수 있도록 농담용 도우미들을 동원해 떼거리로 진행을 했다. 물론 새해부터 짙짙한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뭔가 낙관적인 결론으로 유도해갔다.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종말론이 정말 기독교때문인가? 뭔가 뒤집어 씌움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떤 신문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종말론 조심] 말세를 외치는 소리가 다시 시끄럽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 얘기되는 요즘 일부 유사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종말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의 종말론은 한세기를 접는다는 세기말 분위기에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등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각종 종말 예언들이 겹쳐지는 시기여서 더욱 확산 양상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종교 학자와 과학자들은 “종말론이란 세기말이나 사회가 어지러울때 의례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혹되서는 안된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지난해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시한부종말론 단체들은 현재 50개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도수도 수만명에 이른다. 대부분 과거 종말론 종교단체에서 갈라져 나온 것들. 그러나 탁소장

에 따르면 시한부 종말론을 교리의 일부로 삼고있는 일부 종교단체까지 포함하면 종말론을 신봉하는 단체는 무려 2백여개에 이른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종말론 단체들의 특징은 예전과 달리 매우 폐쇄적이라는 것이다. 세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포교활동을 했던 과거와 달리 소수의 신도들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또 유부녀와 무학자들이 대다수였던 이전의 종말론자들과 달리 IMF사태로 좌절에 빠진 중산층과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도 특징 중 하나라는게 종교전문가들의 얘기. 한편 통신과 인터넷등에서 최근들어 죽음, 공포, 예언모음등 종말론을 다루는 사이트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동아일보 1월7일자 김상훈 선대인기자)

여기에는 더 충격적인 언급이 있다. 그 종교 학자와 과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종말론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는 근거가 어디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종말론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러 문화권에서 경험되어 온 주제이다.(지난 한성진씨의 강의를 기억해 보라) 다만 근대에 와서 종교적인 의미를 완전히 잃은 세속적 형태로 변형되어 존속하고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빠진 종말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종말론이 일어나는 동기로 갖다 붙이는 설명에는 경제적 빈곤, 정치적 고립, 사회적 소외에 빠진 대중들의 저항운동 혹은 사회 불안, 좌절속에 비정상적인 공포, 환상속에서 야기된 집단적 과대망상증의 한 형태등으로 다루는 일이 빠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라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이다. 기독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반해 기독교에서 종말론을 말하면 그저 종교적인 것 정도로 여기는 성향에 더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위에 언급한 설명은, 근대에 이르러 계몽시대 이후 이성이신을 대체한 상황에서 새질서, 새사회의 꿈을 과학과 기술이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근대와 현대인들이 과학과 이성에 거는 신뢰와 거기에서 계획하는 새 사회에 대한 꿈은 종교적 요소가 빠진 천년왕국주의 그 자체이다. 예를 들어 18세기 계몽 철학자들이 뉴턴의 과학을 기초로 하여 지상낙원과 진보국을 세우고자 하였고 프랑스 혁명 이후 이러한 사상은 더욱 세속적 형태로 전개되어 유토피안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나치 운동등으로 존속된다.

19, 20세기에 오면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종교적 천년왕국주의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세속적 천년왕국주의가 등장한다. 이러한 세속적 천년왕국주의를 표현해 주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즉 과학이 종교의 역할을 한다는것, 노동자들이나 기업가들의 메시아 역할을 한다는 것, 정치적 폭력이 사회가 갱신되기 이전의 혼란 상태로 돌아가는 의식들을 상기시킨다는 것, 경제적 과학적 기준에 따른 물품에 의해 빈부가 구별된다는 것 등이다. 세속적 천년왕국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수사학을 의사전달수단으로 사용하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천년왕국의 이미지와 개념들을 언급한다.

서양의 지적운동(김영한, 임지현 편 1994, 지식산업사 p68)그러나 실제로 종말론의 소재인 선과 악의 이원론, 혹은 역사에 대한 결정론,선의 종국적 승리에 대한 사상, 역사에 대한 결정론 등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에서 까지 발견되는 공통적인 소재였다.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종말론적 신앙을 적극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희망을 키워나간 것은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고대부터 제시되어 역사와 그 종말에 관한 문제는 역사적으로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말은 종말론을 제기했던 사상과 운동들이 하나 둘씩 폐기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종말론은 아직 폐기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종말론이 반드시 기독교적인 것만은 아니며 또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기독교의 종말론을 알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종말론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독교의 종말론은 신구약을 통하여 유대적 전통을 이어 받으면서도 세상의 모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사건(부활)과 연관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전우주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말론의 역사

유대적 종말론(하나님나라=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종말론적 묵시(apocalypsis- 계시록에 나오는 말로 장래에 될 일 미리본다라는 의미이다.)사상은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팔레스타인에서 강하게 작용하였던 시대인 주전 539년 이후 약 2세기 동안 유대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페르시아의 사상이 묵시적인 사상의 발흥에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대적 종말론의 핵심적인 요소들-즉 현 세대에 대한 기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부정 등-은 결코 조로아스터교 사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뿌리를 구약의 선지자적 전통에서 찾아야 한다. 원래유대적 종말론은 현세계중심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 약속된 미래는 이 세계의 시간과 공간에 속해 있다는 관점으로 초기의 현세대 종말론(this worldly eschatology)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여호와가 세우게 될 왕국은 젓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과 실제로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에는 죽음이후 삶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관심이나 소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구원은 뭔가보여져야 하는 아주 현실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현실적 종말론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지금 여기에’ 이루어질 나라에 대한 소망이 ‘종말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유대적 종말론이 헬라철학과 페르시아사상의 영향을 받아 포로 시대 이후 선지자들을 통하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은 별 신빙성이 없는 것 같다.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서 후반부(보통 40장 이후를 가리킨다)를 보면 독특한 사상과 관점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대적 종말론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체로 포로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사이에서 선지적 활동이 퇴보하면서 옛 예언에 대한 해석이 다시 검토되었는데 이때 옛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 즉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로 말미암는 황금시대의 시작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날, 메시아 도래, 하나님의 왕국, 새 예루살렘 등의 개념도 같이 발전하였다. 그때가 되면 모든 죄악과 억압의 세력은 종식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에 의해 영원토록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의와 평강만이 넘칠 것이다. 그들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약 주전550~450년 사이에 이러한 관점은 풍성히 발전하였고 그 후 잠시 약해졌다가 주전 200년부터 다시 크게 부흥되었다. 물론 현실

은 이와 반대였다. 바벨론의 70년 포로생활이 부족이라도 하다는 듯이 외세의 압제는 계속되었고 종말론의 극단적 관점이 때로는 무정부적 혁명운동으로까지 이어나가 마카비 혁명, 코흐바 혁명 등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종말론 해설-스테판트레비스/기독교문서선교회 p51)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선지자적 전통은 혼합되어 하나님께서 역사의 지평에서 역사하신다는 옛 선지자들의 소망이 묵시론자들의 초월적 종말론(transcendent eschatology-역사지평에서 구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역사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을 낳게 되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에 부활과 사후 심판에 관한 신앙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묵시론자들에 의한 종말론은 현세대와 올세대를 대조시켰고 시간의 급박한 종말을 설파하고 세대가 오기 전에 우주적인 재난과 혼돈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시적 기대가 이루어졌다고 믿었으며 구약의 선지자적 역사적 종말론과 묵시적, 초월적 종말론이 사용하는 어휘를 그대로 차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과 실재에 있어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조로아스터교나, 헬라주의, 심지어 유대교의 극단적 묵시적 종말론과 다르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묵시적 종말론을 새롭게 교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세례요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중심 메시지로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의 사역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국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예수의 사역과 메시지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사상은 핵심적 부분을 차지한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대의 종말론 해석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겠다. 다만 이부분에서는 유대의 묵시사상의 유산이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소망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말론적 개념들의 내용은 묵시적이라기 보다는 선지자들에게 더 가까웠다. 왜냐하면 묵시주의자들은 역사성을 잃어버린 반면에 선지자들은 임박한 역사적 미래를 마지막 종말론적 완성의 배경에 대비하여 보았다. 왜냐하며 역사속에서 활동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최후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건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마지막 종말론적 행동에 대한 예견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똑같은 구속적 목적을 위한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와 종말론은 역동적 긴장 관계에 있었다. 왜냐하면 둘다 주의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연결이 묵시묵학에서 깨져 버렸다. 묵시적 종말론은 현재의 역사적 사건들에 관련되지 않고 미래에만 속하게 되었다. 묵시적 종말론의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쥘리 레드 -엠마오 p371)

예수의 가르침에서 역사와 종말론이 서로 역동적 긴장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바로 묵시적 하나님의 도래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역과 죽음을 통해 역사속에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의존되었다. 결국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앞서서 역사 속에 침입해 들어와 죄와 사망의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들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예수의 종말론적 가르침은 선지자들과 같이 성격상 윤리적이다. 미래 자체를 위해서만 결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의 현재에 대한 영향 때문에 미래에 대

해서 말한다.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 - 하나님나라와 교회

부활과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초대 교회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확신했고 종말론적 구원을 가져오신 분으로 믿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부활과 재림이야말로 그들이 선포한 기독교의 중심메시지였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파루시아)의 임박성을 선포하였고 그러한 의식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황제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제국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의 교리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도래하기에 앞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신자들에게 큰 고통을 줄 것이라는 설명으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미래의 새 왕국을 희망하며 현재 당하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종말론이 별무리 없이 정통 교리로 인정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종말론이 어떤 특정한 교리형태의 정리된 형태를 띠고 나타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상황도 상황이려니와 초대 교회 교인들이 고백했던 부활신앙은 필연적으로 종말에 관한 함의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이 바뀌자 종말에 대한 신앙을 흔들렸다. 곧 멸망할 것으로 예상되던 로마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견재한 사실부터가 종말론적 기대와 맞지않는 것이었다. 박해를 가하던 로마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나면서부터 교회는 정치적 권리를 갖게 되었고 종말론은 다시 그 명분을 찾아야하는 처지에 이르렀다. 또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이 증가 되면서 기독교구원관도 개인적 구원과 천상에서의 축복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결국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인 역사에 대한 관점수정을 받아들여 교회의 조직에 관한 관심으로 그 자리를 내어 주고 말았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기독교 종말론이 원래 갖고 있던 긴장감과 임박감이 초기케톨릭주의로 제도화 되었다고 본다. (Carl E. Braaten The Kingdom of God and life everlasting p274)

시간이 지나면서 교부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되었는데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이 바로 그것이다. 즉다시 말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와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관심으로 대별되었다. 이것은 초대교회 종말론이 가지고있었던 임박성과는 달리 조금 멀리 있는 혹은 있을 사실에 대한 관점으로 그 시제가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특별히 개인의 종말은 죽음과 연관되어 교회가 그 개인의 종말에 대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식으로 이해되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세의 종말론에 대한 기초가 놓이게되는데 교부 시대에 종말론에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헬라철학의 영향에 아래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헬라철학이 갖고 있는 사상적 틀에 대한 기독교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교부들은 성경적 종말론으로부터 자연과 인간의 운명에 관한 새로운 교리들을 세워나가되 헬라철학이 다루는 소재를 통해서 논증해나갔던 것이다. 예를 들어 육체를 감옥으로 보고 영혼불멸을 믿었던 플라톤의 사상에 관하여 기독교가 갖고 있던 육체적 부활에 대

한 믿음은 논쟁이 될만한 대안으로 작용했고,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자연주의에 대해서도 부활을 통하여 육체와 영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의 종말론의 사상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신학사상을 형성했다. 이 중에서 어거스틴은 신국론을 저술하여 교회와 역사의 관계를 해명하려하였다. 물론 어거스틴이 자신의 종말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저서를 통해 부분적으로 논의했다. 그렇지만 그의 종말론적 사상은 서구교회 종말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다시말해 그는하나님 나라를 교회의 제도적 질서와 동일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말로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도구로 보여 졌다. 유럽사회는 게르만족 이동 이후 지속되던 혼란 상태를 극복하고 봉건 영주와 로마카톨릭교회의 지배구조 아래서 안정된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어거스틴의 관점은 중세의 상당기간 지배적인 교리로 자리잡았다.

여기서 어거스틴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유대적 묵시적 전통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의 종말론이 어거스틴에 의해 정리되면서 그의 관점으로부터 다시나중에 종교개혁을 거쳐 여러가지 종말론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이다.(예를들어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사실 어거스틴의 입장변화 때문에 거론이 되는 관점이다.) 중세시대의 종말론적 주제는 스콜라학자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되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극도로 조직적으로 발전하여 중세 교회의 천사론,지옥론, 연옥설 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면 17세기에 이르러 마지막때에 관한 교리는 칭의의 교리와 함께 종교개혁에 의해서 수많은논쟁을 야기했다.

어쨌든 그러다가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십자군 운동과 14세기에 들어 기근가뭄, 전염병 등의 재해 때문에 조성된 사회 불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구원을 열망하게 되었고 지적 혼란을 받은 수도사들은최후의 심판사이에 해당하는 시간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 해가면서전통적인 묵시적 종말론이 지니고 있었던 혁명성을 전파해 나가기 시작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등이주요 논의 대상이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에 대한반작용으로 작용하면서 당시의 교회세력에 대항한 대중의 저항운동에이데올로기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다. 실제로 종교개혁 이전까지 1381년 영국의농민반란, 1494년 이탈리아 플로렌스 사람들의 반메디치가 저항운동,보헤미아의 급진적 후스파인 다블파의 천년왕국운동등은 교황과 황제가연합해서 일으킨 십자군의 폐해와 경제적 곤궁이라는 억압의 현실속에서그들은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기도 했다. (서양의 지적운동-김영한, 임지현 편1994/ 지식산업사 p57)

그러던 중 루터가 카톨릭교회의 교황권을 거부하고 거기에 연관된 스콜라신학을 거부하면서 시작되고 조직화된 종교개혁은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모두에게 새로운 형태의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도록 재편성되었다.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모두가 전통적인 사상에 도전을 가하면서 새로운관점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루터는 개인의 소망에 대한 중세 교회의스콜라적 개념 즉 영혼 불멸신앙보다는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결정적의미를 부여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대체로 어거스틴의 노선을 따라 초대교회에 일반적이었던 재림에 대한 열렬한 기대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그여파로 종교개혁의 운동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었다. (종말론논쟁-목창균/두란노 서원 p66)

근대(近代) - 하나님 나라와 유토피아

근대의 종말론 근대에 이르러 기독교적 종말론은 거의 종말을 맞을 뻔 했다. 합리주의, 자연주의, 낭만주의, 이상주의, 실증주의등 사상의 요동속에서, 지리상의 발견과 확장, 과학적 발견과 그에 힘입은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전통적 기독교 종말론은 기독교 신앙이 신앙의 범주에만 머무르고 말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거부했던 천년왕국주의(Millennialism: 천년동안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실제로 임한다는 사상)는 여러 새로운 해석방식을 가지고 종교 운동을 통해 나타난다.

먼저 계몽주의의 세계관은 역사 속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붕괴시키고 자연질서와 사회체제로 그 관심을 옮겨 준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는 인간의 이성으로 현세상에 낙원을 이룰 수 있는 사회모델정도로 그려졌다. 다시 말해 종말론적인 왕국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로 환원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속적 종말론은 마르크스나 공산주의운동, 그리고 히틀러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간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세속적, 유토피아적 사회운동속에서도 극단적 종말론의 여파는 꼬리를 감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18세기야 말로 종말론이 마술, 점, 점성술등과 연합하여 나름대로의 종말론 붐을 이룰 정도였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로 풀어내려는 방법론등이 이 당시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혁명전쟁등이 천년왕국의 도래에 앞서 일어난 서구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시대적 징표들에 주목하면서 악이 제거되고 선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적 신념이 판을 쳤다.

19세기에 와서 영국에서는 천년왕국주의의 부흥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개종과 귀향 사건, 천년 왕국의 도래에 앞서 일어날 그리스도의재림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프랑스혁명은 더이상 희망의 실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에 근거한 신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희망의 좌절이었다. 그래서 신의 개입을 통한 완전한 변화를 희구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재림하리라는 전천년설을 믿게 되었다. 이러한 전천년설은 사회적 진보를 초래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호기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악의 풍조를 막고 인류를 기독교로 개종시켜 타락을 막을 수 있다는 교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서양의 지적운동(김영한, 임지현 편 1994, 지식산업사 p63)이러한 운동은 세대주의와 연합하여 영국과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이에 따라 여호와 증인, 몰몬교, 세이커교도 등의 기독교 이단종파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결국 근대에 와서 어떤 학자는 종말론의 종말을 선언하기도 하였다.(제이콥 토베스 Jacob Taubes, Abendlandische Eschatologie Bern, 1947) 그러한 언급이 나온 배경으로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급진적으로 세속화되가는 사회를 반영하여 하나님 나라를 윤리적 개념으로 치환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도 속에 종말론적 기능은 인간의 윤리적 진보 속에 실현된다는 다분히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녹아들게 되었고 자유주의를 비롯하여 ‘하나님 나라’는 소위 사회적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 구호가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속에서 보다 계몽되고 진보된 사회를 통해 현실적인 결과를 얻겠다는 확신은 전통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종말론적 비전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신비적 영역으로 극단화 되었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하나님 나라를 종교적 경험이나 도덕적 능력으로 이해

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현대의 종말론 논쟁 -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현대인들은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여 세속적 종말론은 미래학이나 기타이데올로기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의 연속선 상에 있는 기독교 종말론도 비기독교적, 세속적 종말론과 같이 잡다하게 흐트러져 있다.

비기독교적 종말론이나 세속적 종말론은 종말을 강조하는 것에서는 대체로 기독교적 종말론과 비슷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주로 지상천국을 강조한다. 내세보다는 현세에 집착하며 불가시적인 사후의 천국보다 가시적인 지상천국을 주장한다. 그리고 지옥의 실재를 부정하고 인류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 이단적 종말론은 두가지 측면에서 항상 강조가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리고 재림의 시기에 있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했다거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일교, 물론교, 여호와 증인은 사실 이러한 종말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물론 비기독교적 종말론이 갖고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은 묵시주의적 성향에 의해서 강한 영향력을 받았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극단적, 광신적 성격의 저항운동을 일으키거나 혹은 이것이 공유된 단체나 국가내에서는 극우적 파시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속화된 종말론이 나와 종교성을 완전히 배제하면서도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는 낙관적인 관점을 보이기도 한다.

현대에 있어서 종말론의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심각한 논쟁을 야기시켰다. 그것은 19세기의 종말론적 배경을 가진 자유주의적 신학의 배경에서 먼저 나왔다. 이른바 보수주의나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종말론이 거의 ‘마지막때’에 일어날 일들로 인식이 되면서 종교적 관심으로만 취급을 하거나 역사에 대한 문자적 성경해석을 기초로 세계의 역사를 꿰맞추기도 하는 식의 해석이 주류를 이루는데 반해, 비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대부분 사회 윤리정치적인 측면에서 종말론을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20세기의 기독교의 현상과 맞물려 있기도 하다. 교회가 물량주의, 대형 교회주의 등 양적 성장과 현세 지향적 축복을 강조하면 그 반대 여파로 종말론이나 종말의식이 약해지고 사회적 여건이 불안할 때 그 대안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여지 없이 세속적 종말론(대표적으로 막시즘)이나 이단 종말론이 판을치게 된다. 반대로 정치, 경제적으로 종말론을 해석하는 나라에서는(대표적으로 중남미의 해방신학) 사회의 변화에 보조를 같이하지만 세속적 종말론과 별 다를게 없다.

비복음주의권의 종말론을 거울삼아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종말론은 교리사적으로 볼 때 신학적 관심의 주요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말로 종말론이 중요한 신학적 문제로 등장한 것은 19세기말 이후였다. 여기서는 간단히 19세기부터 20세기 까지 종말론의 쟁점과 관련하여 비 복음주의권에서 일어난 논쟁을 살펴보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안이 어떠해야 하는지 윤곽을 잡아가 보자.

현대 신학이 종말론과 관련하여 제기한 주된 문제는 종말을 현재적인 것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미래적인 것으로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종말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역사를 초월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도 논쟁이 되었다. (종말론 논쟁, 목창균/두란노 서원 p105) 세기가 바뀌면서 종말론에 새로운 논의를 일으킨 것은 요하네스바이스(Johannes Weiss)가 1892년에 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Die Predigt Jesu Vom Reiche Gottes’ 라는 소책자였다. 그 책에서 바이스는 종래의 예수 연구에 중지부를 찍고 신약성서 연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그동안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선포가 신약성경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그는 예수의 하나님나라는 현재적이며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종말론적이며 미래적이고 묵시적임을 이론화했다. 바이스의 중요한 공헌은 예수와 초기 교회의 종말론적 신념을 인식하고 예수가 실제로 이해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려 하였다. (종말론 논쟁, 목창균/두란노 서원 p110)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현대의 종말론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슈바이처(Albert Schweitzer 1875~1966)는 ‘역사적 예수 연구’ (1906)에서 철저 종말론(consistent eschatology) 주장했는데 여기서 그는 예수의 전생애와 사역의 중심이 종말론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시기에 대해 오해했으며(소위 말하는 이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리라는 구절을 가지고) 그 종말론적 기대는 환상에 그치고 말았다고 한다. 예수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완료되기 이전에 인자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지 않자 계속적인 연기에 대한 소망으로 제자들은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슈바이처는 재림의 철저한 연기를 의미하나 사실상 재림의 포기를 의미하는 종말사상을 가르친 것이다. 이러한 슈바이처의 종말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종말론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은 찰스 다드(Charles Herold Dodd 1884~1973)였다. 그의 종말이론을 보통 실현된 종말론(realized eschatology)이라고 부른다. 다드는 원래 기독교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어떤 것이 아닌 현재의 경험의 문제로 취급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다드는 종말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기대의 영역으로부터 실현된 경험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땅 등의 미래적 요소는 유대인의 묵시문학으로부터 도입되어 나중에 첨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재적 종말론의 맥락에서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n 1884~1976)은 실존적 종말론을 제시했다. 실존적 종말론은 미래에 일어날 문자적 사건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과 관계된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신화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심을 두어 그 종말론적 개념을 비신화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실존적 종말론이다.

그리고 종말론이 이야기말로 인간의 연사와 하나님의 초월적 영원의 역사사이의 관계를 밝혀주는 교리라고 칼 바르트(Karl Barth)가 나섰고 그는 ‘기독교가 철저히 종말론이 아니라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도 남아 있지 않다’ 라고까지 말했다. 그 뒤를 이어 몰트만(Moltman)은 종말론에 대하여 기존의 취급방법과 전혀 다른 자신의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종말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통신학이 종말론을 조직신학의 맨 뒤에나 놓고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데 반해 종말론은 신학의 뒷전이 아니고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입장이었다. 이른바 정치적 종말론이 나온 것이다. 그는 종말론은 신학의 한 부분이 아닌 신학의 전체로 간주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종말론이며 희망이며 앞을 향한 전망과 성취이다.’

그것은 또한 현재의 혁신과 변화이다. 종말론적인 것이 기독교의 한 요소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매개체이다.’ (종말론 논쟁, 목창균/두란노 서원 p117위의 현대 신학적 논쟁은 주로 이 책을 골자로 정리되었다.) 여기서 현대의 해방신학, 여성신학, 정치신학, 제 3세계 신학등이 어떻게 나름대로의 신학사상을 구축하게 되는지 그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만일우리가 위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초대 기독교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신앙이고 이와 연관되는 주제가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하는 것이 비복음주의권에서 진행해온 신학적 작업이었다. 결국 논의는 현재적 종말론(슈바이처 볼트만, 다드)과 미래적 종말론(몰트만)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주의적 성경적 종말론과 어느정도 거리가 있는 까닭은 성격에 대한 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의 종말론적 긴장, 현재적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 사이의 긴장이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적인 종말론이 동시에 현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현재적 종말론이 동시에 미래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작업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을지라도 종말론을 심각하게 다룬점에 있어서는 비복음주의권의 공헌도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작업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성경이 최종적인 계시이며 최고의 규범이라고 믿고 있는 보수주의적 기독교는 실상 현세에 안주하여 종말의식을실종하거나 세속적, 비기독교적 종말론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 개인주의적 신앙의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거나 기독교내의 행사로만 끝내버리고마는 도피주의적 신앙의 원인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으면서도 성경적인 종말론을 가르치지 않는데 있다고 본다.

성경적 종말론과 종말의식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종합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기독교 종말론이 비기독교적종말론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종말론의 용어나 형식등을 빌어서 쓰기도 하지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종말론은 비기독교적인 종말론과 확연히 다른 내용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종말론의 형식을 빌어서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기독교적 종말론의 기본적인 형식처럼 투시나 묵시의 개념이 아니라(즉 현실과 확연히 구분되는) 계시의 개념(현실속으로 들어온초월적 관점)으로 보여졌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묵시적 기대를 받아들여셨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에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또한 아직 남아있는 성취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종말론 해설-스테판트레비스/기독교문서 선교회 p64)

이와 연관되어 기독교적 종말론의 특징은 종말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그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재림에 대한소망에 방향성이 이미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시말해 구원과 종말은(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토대로하여)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독교 종말론은 현세의 정치적, 계급적 해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우주적 종말론으로 그 관점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말해 기독교 종말론은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넘어서 차원의 종말론이다. 그러나 이것이 제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항상 묵시적 종말론의 극단적 형태나 세속적 종말론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어 그들이 사회를 요동치게 목과했다.

세상은 아직도 종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내심 두려워하기도 하며 뒤편관적인 것을 그려보기도 한다. 이 때문에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세속적 종말론이 판을 치거나 기독교의 이름을 도용한 이단들이 먼저 선수를 친다.

종말론의 문제는 그저 아무나 떠들어도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은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성격과 함께 교회의 역할, 즉 그것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깔려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견되는 하나님나라의 임박성과 그것이 역사속에 일으키는 긴장을 과연 우리는 갖고 있는가? 교회가 항상 종말의 압박감을 느끼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국교회와 종교적인 행위 자체만 몰입하여 거의 사회 윤리적 기능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러한 종말론적 긴장감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않는가?

이 논의에서는 한국 교회의 종말론을 다루지 않았지만 개화기나 일제시대에 한국 교회를 지탱해왔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말의식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잘 조직화되고 이익을 추구하는 기구가 되었다. 이럴때 교회는 이 세대와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종말론적 공동체로서의 특성이 사라져 버린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말론이 더 이상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와 상관이 없다는 안일한 의식이 교회를 무기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종말론 논의를 교회 안에서 혹은신학교 안에서 신앙차원으로만 이해하려는(그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않는 요식적 행위로)그 안일함은 즉각 윤리적,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안일함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는 다음세대 기독교인들이 떠맡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경적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그임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두가지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먼저는 비복음주의권의 신학적 논쟁을 거울 삼아 창조부터 시작되는 구원사역에 있어 그 방향성을 주는 동시에 전포괄적 관점을 제시하는 종말론연구가 복음주의권에서 필요하다. 또한 ‘임박성’에 관하여는 종말론이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실천의 동기를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끄러워 하지 말아야 한다. 종말론을 의식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거의매 장마다 나오는 윤리적 명령의 타당성과 동기가 보일 것이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때 종말신앙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있다. ‘종말론과 종말의식의 회복’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안아야할 과제임을 제시한다. 주의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고 문헌〉

종말론 논쟁- 목창균/ 두란노 1994

종말론에 관하여 오리겐부터 현대이단에 이르기까지 인물별, 교리별로 내용요약이 잘 되어 있다. 어떠한 종말론 논쟁이 있는지 전체적이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하다.

개혁주의 종말론(The Bible and the Future)-안토니 후크마/기독교 문서선교회 1986

확실한 성경적 종말론을 자세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저자는 칼빈신학교교수였지만 공평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종말론 해설(Christian Hope and the Future)-스테펜 트레비스/기독교 문서선교회 1987

학문적 깊이도 있으면서 간략한 책이다. 목시사상이 어떻게 종말론과 연관이되었는지 신약신학적인 입장에서 정리가 잘 되었다.

예수와 하나님나라(The presence of the future) 죠오지 래드/엠마오 1985

원제목은 The presence of the future, 물론 중심내용은 신약신학에 나타나는 하나님나라라는 관점과 그 해석이다.

주제별 종말론 강좌-윌리엄 헨드릭슨/예루살렘 1994

성경공부형식으로 종말론에 관하여 공부하고 싶다면 안토니 후쿠마의 책과 더불어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고난과 죽음의 의미-RC 스프롤/생명의 말씀사 1996

아기가 죽거나 유산될 때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소위 죽었다 살아난사람들이 증거하는 터널체험은 어떤가? 오늘날 기적이 존재하는가? 등등 골치아픈 문제를 일반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

서양의 지적 운동-김영한 임지현 편/지식사업사 1994

세속적 종말론 및 천년왕국주의의 역사와 관점을 제시해 준 책이다.

유토피아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다룬 방대한 분량이지만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

Christian Theology

- The Kingdom of God and Life Everlasting by Carl E. Braaten/SPCK 1983

Future Grace- John Piper/Multnomah 1995

Reason for Hope -Stanley J. Grenz/Oxford Univ. Press 1990